

# 미추홀

제53호 (격 월 발행)  
2019년 4월 8일 월요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창로 97 (주안5동 22-59) | Tel : 032) 876-8181 | Fax : 032) 876-8416 | E-mail : michu8181@hanmail.net

발행처 |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www.michu.or.kr 발행인 | 황영선 편집인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시민기자단

복지관  
소식  
빠르게  
받는 법



페이스북에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검색 후



좋아요



팔로우  
눌러주세요!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검색 후 친구추가 해주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 문화예술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역문화 네트워크 플랫폼! 미추홀학산문화원

Q. 학산문화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학산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에 의거해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입니다. 우리 학산문화원에서는 미추홀구 주민 분들의 문화향유뿐만 아니라 스스로 창작의 주체가 돼서 예술생태계를 지역공동체로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추홀구의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Q. 학산문화원은 어떻게 만들어진 단체 인가요?

학산문화원은 미추홀구 주민들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미추홀구는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해온 지역임에도 미추홀구 문화를 대표할만한 실질적인 문화주체가 뚜렷이 존재하지 않았습다. 이러한 상황에서 뜻있는 미추홀구의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하고, 준비하여 문화원 창립에 힘을 모았습니다.

미추홀구의 문화예술인들과 주민들을 위한 인천 문화의 협의체로서 문화의 질적 향상을 주도하기 위한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며, 지역 예술을 위한 열린 문화 공간으로 창작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Q. 학산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학산 문화원에서는 주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지역문화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학산 마당극'이라는 축제를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지역의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역사나 이슈, 마을 이야기를 소재로 10분에서 15분 마당극을 만들어서 경연 마당을 여는 것입니다. 시민 참여 예술제로, 주민들이 직접 대본도 쓰고 연기도 다 하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미추홀 주민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미추홀에 관한 강좌와 지역의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주민들과 이야기 나누는 포럼을 열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는 문화원뿐 만 아니라 학산생활문화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Q. 학산생활문화센터는 무엇인가요?

학산생활문화센터는 주민이 창작의 주체로 참여하여 지역의 역사를 비롯해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표현할 마당예술동아리를 마을별, 세대별, 장르별로 양성하여 시민공동체의 자기표현의 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센터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마당예술동아리를 만들어서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지역문화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Q. 이달의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 꿈다락 토요 문화 활동  
초등생(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놀이의 미적 체험과 발달적 성취

를 위한 예술 감각 키우기 활동

- 동양 고전 인문학 산책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단위의 학술적 토대를 구축하고, 동양의 제가들의 세계상과 이념 탐색을 통한 인문학적 사유 확대와 동양 고전 읽기!

- 승기천  
승기천이란 수봉산에서 시작하여, 미추홀구를 관통하여 흐르던 천으로, 공사이후 사라진 천입니다. 승기천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기억을 모아 기록으로 남기고, 주민들과 이야기 나누는 열린 잡담회를 통해 승기천과의 삶, 우리 지역의 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하는 활동!

Q. 생각하시는 학산문화원의 가치는?

'문화가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김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문화나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드높게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토대인 문화를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지역인의 삶이 문화적인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학산 문화원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신 시민기자





## 마을박물관, 주민의 삶을 담다



마을박물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과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 상호 협약 및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해 만드는 작은 박물관입니다. 마을의 역사와 문화, 주민의 삶과 추억을 콘텐츠로 활용하여,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큐레이터'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마을의 역사와 가치를 조사하고 기획·전시하여 운영하는 박물관입니다.

마을큐레이터들은 박물관 운영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해설 및 체험교육, 유물수집, 구술 채록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추홀구 마을박물관은 2015년 제 1호 토지금고 마을박물관으로 시작해, 2016년 제 2호 축골마을박물관, 2017년 제 3호 독정이 마을박물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마을박물관을 운영하는 이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동네 주민들입니다. 마을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주민이 전문 학예사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토지금고와 축골, 독정이 마을박물관에는 각각 9명과 6명, 9명의 주민이 마을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박물관은 커다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공간만으로도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금고 마을박물관은 컨테이너 2동에 조성됐으며, 축골 마을박물관은 비어있는 주택을 박물관으로 꾸며놓았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전시를 비롯해 마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교육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험교육 역시 마을큐레이터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의 어른이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통시대의 마을공동체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

니다.

이번 미추홀N에서는 제 1호 마을박물관인 토지금고 마을박물관의 마을큐레이터 최형신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토지금고마을박물관 마을큐레이터 최형신씨

**Q. 토지금고 마을 박물관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용현 2.5동을 기준으로 마을의 역사와 문화, 주민들의 삶과 추억을 활용하여 마을의 이야기를 마을 박물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마을 박물관답게 주민들로 구성된 9명의 큐레이터가 자원 활동 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박물관의 전시는 마을 큐레이터가 직접 주제를 정하여 기획하고 전시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용현동이라는 지명 보다는 토지금고라는 지명으로 더 유명한데 이것은 1970년대 공기업 토지금고가 갯벌을 매립하여 대규모 택지사업을 전개하면서 만들어진 곳이라서 자연스럽게 불려 지게 되었습니다.

**Q. 토지금고 마을 박물관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두 번에 걸친 인문강좌를 통해 10여 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 큐레이터가 모여면서 마을이 가진 역사와 그 안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공동체를 살려보자는 관심과 참여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2015년 10월 교육부 인문 도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금고 마을 박물관이 추진되었습니다. 미추홀구청에서 마을 박물관의 수요조사와 대상지 섭외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상설전시를 기획한 후 마을 큐레이터를 양성하여 2015년 11월 제 1호 마을 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Q. 토지금고 마을 박물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전시 기획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소통하는 사랑방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전시는 '토지금고를 열다'라는 주제로 토지금고의 역사, 공간, 길,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용마루 1960' 특별기획전으로 지역주민들이 기증한 사진 30점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 사라져버린 용마루의



옛모습을 통하여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였습니다.

2017년은 독일인 사진가 클레가의 사진 기증으로 '이방인의 눈에 비친 용마루 - 미래는 과거를 바라보고'라는 주제로 용마루의 재개발 이전 모습을 통하여 사라져갔지만 그곳에 담긴 추억을 되새기며 우리의 현재가 머지 않아 미래가 됨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그때 우리들의 일터'라는 주제로 이곳의 공장과 일자리를 찾아 정착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그려내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토지금고 손수건 지도, 가방 색칠하기, 토지금고 지도 그리기 등을 실행했으며 앞으로는 전통놀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Q. 토지금고 마을 박물관이 생기고 난 후 변화한 점은 무엇인가요?**

이야기 거리가 생겼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답소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주민에게는 추억을, 새로 유입된 주민들에게는 용마루와 토지금고에 대하여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 유입된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더욱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토지금고 마을 박물관의 가치는?**

제가 생각하는 토지금고 박물관의 가치는 잊혀질 뻔한 우리들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고 지역 주민들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역사성'과 새로 유입된 주민과 원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과의 '공동체 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은신 시민기자

### 토지금고 마을박물관 운영 안내

관람시간	매주 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마을큐레이터 전시해설시간	관람시간과 동일
장소	미추홀구 남섬동로 68-26 (5월까지) → LH미추홀3단지주민편의시설 이전 (6월중)
내용	기획특별전 '그때, 우리들의 일터' 및 용현2·5동의 역사



 우리지역 사회경제적기업을 소개합니다.

## 함께 사는 즐거움, 협동조합다락(多樂)

# 다락

## 함께사는 즐거움

협동조합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입니다. 이번 미추홀N에서는 2014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돼 마을주민과 공동체를 위한 공동구매, 공유경제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합리적 소비와 나눔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는 '협동조합 다락'을 만나보았습니다.

### Q. 협동조합다락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협동조합 다락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마을기업입니다. 2013년 11월 마을공동체인 향아리: 항상 아름다운 마을(里)을 결성하고, 그 다음 해인 2014년 5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2014년 9월에 1차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았으며, 2017년 전국 우수 마을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Q. 협동조합다락은 어떻게 만들어진 기업인가요?

아파트 단지 내 엄마들이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로 만나, 학교 도서관과 공공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으로 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는 도깨비'라는 동아리를 조직하여 매주 책과 나누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시작하였던 것이 이제는 '우리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까지 뻗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정란 공동구매를 시작으로 마을 공동체 향아리: 항상 아름다운 마을을 결성하였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속 및 유지하기 위해 협동조합다락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 Q. 협동조합다락이 하고 있는 일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 공동구매, 엄마강사 교육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유경제는 도서대여와 소형가전대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서는 신간도서구입과 회원들의 도서 기증을 통해 마련하여 낱권대여와 전집대여로 진행하고 있으며, 소형가전 대여는 일반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은 이불청소기와 같은 가전들을 다락에서 구비하여 대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구매는 바른 거리와 윤리적 소비 지향을 위하여 유정란 농장과 직거래 협의를 맺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 40여 품목을 마을 단지 내 공동구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강사 교육사업은 마을의 잠재된 인력을 마을 공동체와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교육강사 양성 과정을 거쳐 인근 초·중·고에 사회적 경제 강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출강하고 있습니다.

### Q. 협동조합다락이 다른 기업과 다른 점은?

협동조합 다락만의 자랑거리인 마을 공동체, '항상 아름다운 마을'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유지를 위해 마을 주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공동육아라는 키워드로 여러 맞춤형 프로그램과 함께 성인 취미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폐지 수거 어르신들께 경제적 지원을 드리는 예비 사회적기업 '러블리페이퍼'와 연계하여 각 가정에서 종이를 수거하여 기부함으로써 폐지 수거 어르신들의 생계를

를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독정골 도서관 블록방에서 주 1회 블록해체 봉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봉사 단체에 주는 칭찬 릴레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회원들과 얼굴을 보며 정을 나누는 기회의 장을 만들고자 연 2회 아파트 단지 내 선비공원에서 각 가정마다 있는 잘 쓰지 않는 물건, 작아진 옷, 장난감 등을 판매하는 나눔 마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골밀도 무료 검사, 짜장면 할인 행사, 여러 체험 활동 등을 진행해 왔으며 마을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마을의 잔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Q. 앞으로의 계획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우리 마을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며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경제, 공동구매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엄마강사 교육사업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우리 마을의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김유현 시민기자



▲ 2017 전국우수마을기업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한 '협동조합 다락'



#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18년 9월부터 전체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월 25만원의 기초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19년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약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 또한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의 어르신(약300만명)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 추진계획

- 17개 시·도교육청 협조를 통해 3년 이상 선수 활동 경력과 기초 생활수급가정에 해당하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급 자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044-202-3672)
- 시행일 : 2019년 4월(잠정)부터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돌봄 서비스 실시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과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각각 도입할 예정입니다.

### ◆ 추진배경

-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발달장애인이 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면 마땅한 갈 곳이 없어 사회에서 소외되고,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은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 (주간활동서비스) 2019년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월 88시간(하루4시간)의 주간활동 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2022년까지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7천명까지 주간활동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높일 계획입니다.
- (방과후돌봄서비스) 2019년 하반기부터는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인 4,000명을 대상으로 월 44시간(하루 2시간)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2022년까지 청소년 발달장애인 22천까지 방과후돌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 ◆ 주요내용

- ① 주간활동서비스
  - 대상자 :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1,500명
  - 서비스내용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88시간
- ② 방과후돌봄서비스
  - 대상자 :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 4,000명
  - 서비스내용 :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44시간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52)
- 시행일 : 2019년 3월

## 직업계고등학교 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선도학교 운영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2019년부터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0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학점제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과 우수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기존 연구·선도학교 23교에서 100교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 단위학교 단독형, 타학교 연계형, 학교 밖 교육시설 활용형, 지역대학 협력형 등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점제 운영모델의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044-203-6739)
- 시행일 : 2019년 3월

##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 ◆ 추진배경

-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교육비 부담 경감
- 19학년도부터 교육급여 대상자인 초등학생은 연간 203천원, 중·고등학생은 290천원의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연 2회 분할 지급되던 학용품비를 연 1회 일괄 지급으로 변경 지원합니다.

### 〈19학년도 교육급여 항목별 연간 지원금액(1인)〉

지급대상	지급항목	2018	2019	비고
초등학생	부교재비	66,000원	132,000원	연1회 지원
	학용품비	50,000원	71,000원	
중·고등학생	부교재비	105,000원	209,000원	연1회 지원
	학용품비	57,000원	81,000원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실비 전액	실비 전액	납부금 감면

### ◆ 신청방법

-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에서 탈락하더라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 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24)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시행일 : 2019년 3월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위해 19년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 추진배경

-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만 18~34세 청년 중 ①졸업·종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②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졸업·종퇴 후 기간) 신청 시점 기준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종퇴 후 2년 경과 되지 않은 미취업자
- ② (소득기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6,244원 이하

- 50만원 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 19년 3월부터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 시작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044-202-7493/7443)
- 시행일 : 2019년 3월 접수 시작

## 해바라기 간호인력 확충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통합형) 간호인력이 39명 확충됩니다.

### ■ 해바라기센터란?

- 여성가족부-시·도-(지방)경찰청의 지원 하에 병원이 운영하며,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담·수사·법률·의료·심리치료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 2019년부터 간호인력이 확충됨에 따라, 피해자 증거채취, 의료상담 등 의료지원 서비스가 한층 강화됩니다.

-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02-2100-6398)
- 시행일 : 2019년 4월



## 한울타리 소식

### 수미정사



###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오신날은 불교의 가장 큰 명절로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모두가 즐겁고 신나는 하루가 되는 날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수미정사에서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5월 12일 일요일 10시 30분부터 봉축

법요식이 봉행됩니다.

이번 봉축 행사는 1부 순서로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회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 흥겨운 놀이 마당이 진행되는 2부 어울림 마당은 오후 2시부터 진행 됩니다.

저녁 6시부터는 점등법회

및 산사음악회가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날은 누구나 종교와 상관없이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미정사 봉축행사에 함께 하시어 좋은날, 행복한날 되시기 바랍니다.

### 영산정사 · 불교문화원



### 자연발효음식 문화체험

2019년 3월 31일 토요일 영산정사 · 불교문화원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 자연발효음식 문화를 계승하고, 건강하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문화를 익혀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고자 자연발효음식 문화 체험의 첫 번째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체험을 신청하신 20여명은 이날 아침 영산정사에

모여 전통 장 담그기 체험을 했습니다. 메주 손질부터 이 론교육과, 실습으로 교육이 진행 되었습니다.

처음 된장을 담가보는 분들도 있고, 어린 시절 가족들과 같이 담갔던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저마다의 장 담그기에 관련된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으로 이날 체험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교육 후에는 영산정사에서 미리 담가둔 된장에 찜을 준비해서 다 함께 점심 공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교육은 4월 13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니,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산정사에 신청하시어 유익한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사)미추홀공덕회

###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맞이 (사)미추홀공덕회 자비나눔 실천



(사)미추홀공덕회는 2019년 5월 12일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며 연수구청, 미추홀구청과 연계하여 각각 쌀 10kg(100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비의 쌀 나눔” 실천은 지역 내 복지시설, 무료급식소 등 연수구청과 미추홀구청의 추천을 통해 결식노인과 청소년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 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게 쌀을 지원함으로써 결식가정을 줄이고, 기본적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저소득가정의 우수학생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감소시켜 학

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시교육청과 연계하여 저소득가정의 우수학생을 추천받아 기본적인 학업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미추홀공덕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자비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 4월 활동 안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하는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세탁 서비스

**일시** 2019년 4월 18일 (목)

**내용** 세탁물 수거 및 세탁

**문의** 032-876-818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인하직업전문학교, 장루이다비드와 함께하는

## 이미용 서비스 파마, 커트

**일정**

4월 4일 목요일 오후 1시

4월 18일 목요일 오후 1시

**장소**

2층 이마용실

※ 일정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Let's Enjoy science!

다양한 만들기 체험을 통하여 아이들의 창의력, 집중력, 상상력을 키워주는

## 아동과학교실

**대상** 13세 이하 아동

**일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0시

**장소**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문의** 목수정 사회복지사 032-876-818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하는

## 퀵트 원데이 클래스

'나만의 파우치 만들기'

**일시** 2019년 6월 18일 (화) 10시

**장소**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내용** 나만의 파우치(동전지갑) 만들기

**접수방법** 내방 또는 전화 (선착순 10명)

**참가비** 무료 (개별 반질고리세트 지참)

**문의** 032-876-8181 / 정화진 팀장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검색 후 1:1 채팅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 다름을 바라보는 시선

## 플로리다 프로젝트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디즈니랜드 맞은편의 매직 캐슬에서 6살 꼬마 무니와 친구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포스터만 보고서 밝고 신나는 내용일 거라고 짐작하기 쉽다. 하지만 이 영화는 알록달록한 미장센과 재잘거리는 아이들의 모습 사이에 어두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이들이 살고 있는 매직 캐슬은 매 주마다 방세를 받는 저가의 숙박업소이다.

장기 투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때때로 무니와 무니의 엄마 헬리는 쓰던 방에서 짐을 빼고 외박을 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투숙객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약자, 빈곤자들이다.

무니와 친구들은 전부 아빠가 없고 엄마와 살고 있다. 헬리는 구직활동에 힘써 보지만 잡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유자적 마약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현실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방세를 낼 돈이 없어진 그녀는 클럽 댄서 일을 알아보고 길거리에서 향수를 팔기도 한다.

매 순간 무니는 엄마의 행동을 지켜보고, 때로는 같이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점차 익숙해진다. 헬리는 무슨 짓을 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자 더욱 타락하게 된다. 방임되고 있는 무니는 혼자 놀거나 새로운 친구 전시와 어울려 돌아다닌다. 무니와 전시는 즐겁게 장난을 치지만 가끔 아무렇지 않은 낯으로 우울한 말들을 나눈다. 명랑하게 뛰어놀고 다녔어도 자신들이 처한 불우한 환경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영화는 꼭 그렇게, 즐겁지만 우울하게 전개되다가 무니와 헬리에게 큰 위기가 닥치면서 결말을 향해 달려간다.

이 영화는 빈곤한 한부모 가정이 매일 어떤 문제들과 부딪히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담담하게 그려내는 영화이다. 영화를 보면 담배와 마약에 찌들어 사는 헬리가 무능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장난만 치고 다니는 무니가 너무 속았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됴됨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헬리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고, 무니는 돈이 없어도 활발하게 잘 지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매번 갖가지 문제들과 부딪히니까, 헬리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 담배를 피우고 무니는 현실을 도피하려 놀러 나간다. 단순히 이들의 행동보다는, 이들을 이렇게 만든 사회가 더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라가 이들에게 해주는 것은 푸드 트럭에서 나눠주는 빵 한 봉지가 전부였다.

선진국인 미국의 복지가 실제로 이 정도인가 싶어서 굉장히 놀랐다.

헬리처럼 열심히 백방으로 일을 구하는데도 취직할 자리가 나지 않는 경우는 개인의 노력으로도 자립이 불가능하다는 걸 뜻한다. 그런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나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인데, 그런 사회 안전망이 충분치 않으니까 헬리와 무니는 방치되고, 점점 더 빈곤해지고, 점점 더 나락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빈곤을 오로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무니와 헬리 같은 존재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곤 한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 개봉하면서 마치 아이들을 위한 즐거운 동화인 것처럼 홍보하여 흥행에 실패했지만,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주목할 만한 것 같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죽지 않고 오히려 더 뛰놀고, 때로는 가난에 순응하더라도 어떻게든 억압에 저항하려 하는 무니와 헬리를 보여 주며 '가난이 순전히 이들의 탓인가? 이들은 매 순간 삶을 살아가려 정말 애쓰고 있다.' 라는 말을 해 주는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할 영화이다.

영화를 보면서 안타까운 주인공들에게 비난을 가하는 대신에 이들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김유현 시민기자



▲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 속 장면, 출처 네이버 영화



## 3·4월 인천 문화 달력

제10회 인천개항박물관 기획전  
〈인천 중구 개항장에서의 만세함성〉展 개최

- ▶ 기 간 : 2019년 3월 1일 ~ 5월 31일
- ▶ 내 용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과 관련한 역사적 장소나 인물을 소개
- ▶ 장 소 : 인천개항박물관 기획전시실 (인천 중구 신포로 23번길 89)
- ▶ 입장권 : 무료
- ▶ 문 의 : 032)760-7860

## 한눈에 보는 한국 근대문학사



- ▶ 일 시 : 2019년 6월 30일까지
- ▶ 장 소 :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실
- ▶ 내 용 : 한국 근대문학의 보석과 같은 명작들을 당시 모습 그대로 만나는 기획
- ▶ 문 의 : 032)773-3804
- ▶ 관람료 : 무료

## 2018 예술정거장 프로젝트



- ▶ 기 간 : 2019년 10월 3일
- ▶ 내 용 : 인천시청역 전역에서 펼쳐지는 현대미술작품 전시
- ▶ 장 소 : 인천지하철1호선 인천시청역
- ▶ 관람비 : 무료

## '기억할게, 우토로'



- ▶ 기 간 : 2019년 4월 14일 까지
- ▶ 장 소 : 한국이민사박물관 (인천시 중구 월미로 329)
- ▶ 내 용 : 또 다른 억압의 아픈 역사, 기억해야 될 우토로에 관한 전시
- ▶ 관람비 : 무료
- ▶ 문 의 : 032)440-4710



#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후원자, 봉사자를 소개합니다

## 봉사자 · 단체 명단 (2019. 01. 01.~2019. 3. 30.)

가용섭	김영자	남해정	서현숙	이남기	정수경	최미성
강이교	김예빈	노금임	서현주	이명희	정운경	최민혁
강현주	김원순	노예진	성숙영	이문성	정해성	최아영
곽동혁	김유진	노지원	소다미	이성문	정현정	최영문
곽준애	김유진	류시해	송윤정	이영옥	정혜란	최은철
권영자	김장배	문석두	송명자	이용진	조나령	최지원
김경순	김재숙	박기훈	송민기	이유림	조덕환	한상태
김경자	김재훈	박노은	송정섭	이윤지	조민홍	한승연
김다희	김재훈2	박관용	신혜민	이종명	조양숙	한예지
김덕규	김정현	박서연	엄해슬	이채빈	조은비	한지연
김도현	김정화	박선우	우지혜	이하늘	조종순	한희숙
김미숙	김주리	박이경	원성희	이혜진	주순분	현광섭
김미영	김진이	박이훈	원소미	이화자	지현정	홍수원
김병열	김찬영	박재호	원진주	임민숙	차승구	홍영희
김봉호	김태희	박진규	유건룡	임준혁	차은자	홍정석
김수진	김현숙	박희도	유기숙	장금숙	차정옥	홍종후
김수환	김혜련	방숙자	윤명순	장기두	차정희	황영자
김신영	김혜련	백강현	윤미자	장남수	최남식	
김연복	김혜순	백만종	윤예준	장우순	최만업	
김연희	남용란	백진우	이기주	정명식	최만업	

### 봉사 단체

누리봄봉사단	인화여중	이타행원단
미추홀 영상팀	대학적십자사	인화여고과학동아리
신바람봉사단	인천지부	뉴턴
인하직업전문학교	세림조경디자인(주)	주부9단
장류이다비드	선화여중	

## 후원자, 후원단체 명단 (2019. 01. 01.~2019. 3. 30.)

### 개인

고경희	김용운	민근홍	왕택상	조오형
고영식	김용휘	박대영	유부자	조찬호
고해열	김의기	박두석	유영재	차승구
권순영	김준현	박종화	유인식	채규숙
권영자	김준희	박준범	이승중	최광언
김경호	김지태	박호성	이영주	최성규
김경화	김진결	배종남	이화신	최성직
김대호	김태완	백경숙	임병석	최익수(금호수산)
김동인	김형준	사유나	임재우	하기수
김명관	김홍규	신옥경	전윤표	홍성철
김연제	모현숙	심성우	정광섭	
김영진	문찬규	안창현	정준영	

### 단체

(주)아이더스코리아	부성ENG
(주)코리아미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KBS강태원복지재단	삼삼기업
거름	스팩
남인천방송	아이들과미래
대성하우징협동조합	어린이재단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인쇄마루 이인상
본죽석바위점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부국사료(주)	현광마트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안내

대 상	프로그램명	교육일정	수강료
아동	아동도예	월요일 16:00-17:00	월 4만원
	요가1	월요일-금요일 09:00-10:00	월 3만원
	요가2	월요일-금요일 10:00-11:00	월 3만원
	노래교실	금요일 13:30-15:00	3개월 2만원
	피아노 1교실	화요일 13:00-15:00	월 2만5천원
	피아노 2교실	목요일 14:00-16:00	
	춤바탕스	월요일-금요일 14:30-15:30	무료
	기타교실	수요일 10:00-11:00	무료
	한글서예 / 캘리그래피	화요일, 수요일 10:00-12:00	3개월 10만원
	성인도예	화요일 13:00-14:00	월 4만원 (재료·소성비 포함)
		수요일 13:00-14:00	
	한글교실	월, 수, 금요일 09:00-11:00	무료
	스마트폰 기초	화요일, 목요일 13:00-14:30	
	스마트폰 심화	화요일, 목요일 14:30-16:00	
	컴퓨터 기초	화요일, 목요일 16:00-17:30	
	탁구 초급 / 중급	월요일, 화요일 10:00-12:00	
	생활체조	화요일, 목요일 11:00-12:00	
	건강 체조	월, 수, 금요일 13:00-14:00	
		화, 목요일 13:00-14:00	
	피아노초급	화요일 15:00-17:00	

### ■ 프로그램 접수 안내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가정은 상담을 통하여 수강료 면제 및 감면 가능합니다.
- ▶ 현장납부 및 온라인 입금이 가능하며, 온라인 입금 (수협 105-01-123911, 예금주: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수강생이름/과목명으로 입금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강생이름으로 입금이 어려울 경우 입금 전 복지관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전화(032-876-8181) 또는 방문(인천시 미추홀구 염창로97)

### ■ 복지관 찾아오시는 길



## 세상 가장 빛나는 움직임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 ▲ 대 상 : 지역주민 누구나
- ▲ 모집분야

항 목	내 용
재능기부	방과 후 교실, 아동·성인·어르신 프로그램 교육봉사, 멘토링 (멘토-정기적으로 주1회 이상 활동 가능) 등
어르신 관련	도시락·밀반찬 배달(차량운전 등), 재가어르신 안부전화, 저소득가정·어르신 가정 방문
장애 관련	장애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활동 보조 등
기타	복지관 내 자원봉사 활동 (환경 봉사), 행정업무 등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화(032-876-8181), 홈페이지 접수
- ▲ 혜 택 : 자원봉사자 전문성증진을 위한 교육, 나들이 및 송년행사 초청,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사회봉사인증센터 활동 실적 입력 등

### 후원참여방법

CMS자동이체	은행에 가지 않고 전자결제를 통해 자동으로 후원금을 납부하는 편리한 방법	
계좌이체	복지관 전용 후원계좌에 직접 후원금 기부	
계좌입금 (후원처)	은행명	계좌번호
미추홀종합 사회복지관	신한은행	100-028-789630
	국민은행	647101-01-093681
	수협	105-01-123876
	농협	130040-55-000088

후원분야	방 법
물품후원	생필품, 가전제품, 식품 등 후원품을 후원해 주시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합니다.
결연후원	독거어르신,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세대와 결연을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급합니다.
사업후원	어려운 이웃이 바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복지사업지원



##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따뜻한 이야기

미추홀 관장님께.

존경하는 관장님께.  
저는 좋은 미추홀에서 공부하는 할머니 학생입니다.  
우리 같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좋은 복지관에서  
한글 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답니다.  
나는 한글을 몰라서 힘들게 살았답니다.  
남편이 사우디에서 근무를 했을 때도 글을 몰라서  
편지를 한번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좋은 미추홀에서 한글을 배워서 밝은 세상을  
사는듯 행복합니다.  
존경하는 관장님!  
어떻게 한글 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빛나는 미추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어르신의 복지욕구에 맞는 다양한 문화·여가·건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10년이 넘도록 저학력·비문해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글 교실은 매주 월·수·금 9시부터 11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명의 어르신들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열여덟, 꽃다운 나이로 돌아간 것만 같은 기분으로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보내주신 편지를 소개시켜드립니다.

글 배우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며, 남은 세월 할 수 있는 데까지 공부 해야겠다는 이 작품의 주인공 박OO, 김OO 어르신!

처음에는 이름 석자 도 쓰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사랑이 담긴 편지도 쓰고 은행업무도 스스로 해낼 수 있어 기쁘다고 하는 우리 어르신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한글교실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언제나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글을 모를 때는 자선도 없고 이 행복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음은 너무 행복해서 내가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2월에 자음은 밖에 나가면 길이 전방도 읽을 수 있는  
이제는 밤에 조금 보탬이 되면 노력을 합니다.  
어제는 부족함이 많아서 공부를 좀더해서 내 뉘 허락  
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을 배우기 전에는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면 뒤의 도움을  
받을까, 눈치를 보곤 했는데 지금은 내 스스로 하니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공부해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고 싶고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내 서기서나 댕기 마음 밝아라 합니다.  
아할대 눈을 모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준  
여러 선생님들께 제가 대표로 고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불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